

믿음 사용 설명서
Faith, It Works

믿음 사용 설명서

Faith, It Works

©201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9. 8. 10

지 은 이 | Linton M. Smith

옮 기 이 | 고정인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96-1

■ 정가 4,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CONTENTS

1. 믿음. 정말 멋지지 않나요?	7
2. 믿음의 선물	10
3. 믿음의 통계	16
4.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	17
5.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30
6. 하나님의 뜻 알기	41
7. 믿음의 힘	59
8. 사람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믿음	64
9.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받은 베드로	70
10. 작은 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73
11. 믿음은 권위에 기초합니다	80
12. 믿음의 회로	82
13.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84

1. 믿음. 정말 멋지지 않나요?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조지 뮐러 (George Mueller), 레스터 롤로프 (Lester Roloff)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다 보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 세 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다 보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교리에 관해 토론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볼만한 흥미로운 주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세상 모든 일을 하는데 충분한 돈이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유한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교회 건물을 짓고, 선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경 대학을 설립하고, 전세계 방송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버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착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다스릴 지배자로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풍성히 제공해 주시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안전함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안전함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는 소돔 사람들의 죄와 같습니다. 에스겔 16:49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

지 아니하였고 50. 또 그들이 거만하여…”

게다가 우리의 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13-18을 읽어 봅시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16.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17.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저는 우리와 같은 근본적이고 독립적이며 성경신자인 침례교인들이 앞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권고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저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했던 권고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3.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진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히 12:2)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의 선물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그분께 부탁 드렸던 많은 것들을 그분께서 실제로 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진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쫓기다 보니 믿음으로 참되게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제 자신을 던졌고, 건축자와 만드신 분으로서 자신이 세운 도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똑같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분께서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에 두 눈으로 먼저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제 육신과 싸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믿을만하지 않은 존재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

리의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에 대한 저의 경험은 그분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생겨났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인 레스터 롤로프를 만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제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바라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이때만해도 그 기도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제 삶의 모든 면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놀라울 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시련과 승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영적인 조력자로서의 아내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런 여자를 찾는다고 해 그 사람이 저 같은 남자에게 마음을 줄 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고, 제 믿음을 시험하는 첫 번째 큰 시험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에 관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셨고, 좋은 아내가 곧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제

가 원하는 것에 대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한 장을 내려 놓고 앉아서 경건한 크리스천 아내라면 갖춰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신성한 중매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러한 일에 대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저는 즉시 목록에서 아름다움을 빼 버렸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빛이 나는 얼굴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여성을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 15개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것들 모두를 여기에 적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중 하나는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지만 실용적인 것도 구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작가가 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분당 120단어를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연 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분당 60단어만 칠 수 있다 해도 괜찮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훌륭하게 일하십니다. (역주: 분당 120단어는 분당 500~600타 이상 되는 상당히 빠른 타자 속도입니다.)

저는 또한 현실을 잘 알고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괴로운 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입고 그것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날 그 여자가 과거에 대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제 아내가 자란 집은 그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술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십대일 때에는 마약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짓는 죄를 지

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는 시골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했습니다. 도시 여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자란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고 제 아내는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똑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재료이든지 주어진다면 그것을 활용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기도했던 덕목들 중에 이 덕목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자레인지나 식료품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생전 처음 보는 채소를 보고도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남자들 중 몇몇은 그들의 아내에게 중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좋은 엄마가 될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제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제가 구했던 마지막 기도제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여성 알코올 중독자 구제 전도단에서 야간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기독교 서적, 설

교 및 음악 테이프와 복음서를 공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활동과 제 사역이 겹치지 않도록 가기 전에 항상 미리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 날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꼭 그녀에게 서적을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순간 저는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웬일인지 저는 구제 전도단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더 오랫동안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소책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떠나려고 할 때, 구제 전도단의 책임자가 리사에 관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둘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어때요?” 저는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사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가만히 있던 제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리사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에게 성경에 대해 물으면 대답해주고 성경에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제 전도단 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고 결혼 첫날부터 마치 수년간 결혼한 사이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서로 맞춰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었고 오직 주님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었습니다. 구원 받은 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

는 좋은 여자가 한 남자의 인생을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반대로 완전히 망쳐 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를 최고가 될 수 있게 도와 줄 수도 있고, 그를 사역에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남부 지방 출신의 미인인) 소중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물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에는 다른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룬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분 모두의 신앙 생활에 영감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믿음의 통계

흥미롭게도 “믿음(Faith)”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에 관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약 2:18b).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구약 성도들에는 이 말씀을 정확히 실천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얻은 교훈에 대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구약과는 대조적으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31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중에서 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졌는지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연구해 볼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이 단어는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34번)와 히브리서(31번)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4.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대해 알아 보려고 성경을 찾아 보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에 있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롬 14:23)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전도자인 레스터 롤로프는 한 번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죄였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번 주에 행했던 일들 중에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죄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기 위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악한 경우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고 구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3절은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받기 위해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완전히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히 11:6)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 무엇을 말하든지 다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

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과 상관 없는 것은 죄입니다. 명백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죄”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했던 설교 중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그 이유를 성경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 덕택에 저는 이 책을 써야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믿음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얻고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잘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매 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believing)”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faith)과 믿는 것(belief)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론 이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벧전 1:23).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6:63). 이처럼 그들은 동일하지 않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

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히브리서에 있는 잘 알려진 구절을 떠올립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구절로 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구절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구성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는 구절을 살펴 봅시다. 내용 자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사랑이 하나님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중 하나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문이시지만 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단지 우리에게 그분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줄 뿐입니다. 어떤 개념을 다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개념의 완전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계 19:10b)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언은 미래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한 대언은 하나님께서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롬 4:17).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십니다. 그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지금 그것들을 갖고 있다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 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 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출 31:18). 시편의 구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의 증언을 지키리이다**” (시 119:88). (참조, 요한복음 3:33, 고린도전서 1:6, 2:1, 요한계시록 1:2)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로마서 4장 17절의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

니라” (요일 5:9). 시편 기자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시 118:8)고 말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일 5:10). 이해가 되시나요? 증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라메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시 119:89)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바로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이 진실이라고 증언하실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언이 진리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요 5:6). 이와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믿지 않고 거부해서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와 진리의 계시에 대해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쓴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증언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물론이죠! 형제님/자매님께는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 (James Stewart)는 그의 자서전에서 미래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기도를 마칠 때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자신의 길을 확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험을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그가 조금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저도 마침 주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것은 매우 시기 적절했습니다. 친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제 친구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더 이상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튜어트 형제의 간증을 통해 제 마음의 증언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다시 한 번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제 간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낸 첫 해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경험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활용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시 6살이었던 제 딸이 현관 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딸아이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자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자기만 빼고 친구들 모두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은 아들에게 다른 선교사가 쓰던 중고 자전거를 겨우 사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잠시 동안 자전거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부탁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자전거를 직접 사라고 차갑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는 갔지만 딸의 단순한 필요조차 채워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아빠, 자전거 사주시면 안돼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글쎄, 지금 당장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면 안될까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우리에게 정말로 자전거를 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생필품 외에는 다른 것을 살 돈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보자. 당연히 기도해 볼 수 있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가르쳤는데 만약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때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고 그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카드를 끊어버리고는 하나님께서 카드 청구서를 지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카드가 한도초과라도 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재정적인 문제에 매이게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분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가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청구서를 들이댁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시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자전거에 대해 기도해 볼 테니 몇 분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무실로 사용하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시다. 저는 문을 닫고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 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인지 모릅시다. 사역을 위해 가족을 세상 반대편으로 끌고 와 놓고 어린 딸에게 자전거도 사 줄 수 없다니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저는 희생해도 상관이 없고 자녀들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지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딸의 이같이 작은 소원을 성취시켜줄 능력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칠 즈음에 저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에게 자전거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 딸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대신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런 것 없이도 살아 나가야 한다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 마음에 다

음과 같은 대답을 주시면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디아나를 위해 그렇게 해 주고 싶다. 디아나에게 자전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하지만 주님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 층으로 내려가자 딸아이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아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자전거를 주실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여쭙어 보자.”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기도하렴.” (디아나는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합니다.) 딸아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저에게 계속 잘해 주셨고, 좋은 엄마와 아빠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자전거가 저한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딸에게 그래도 예수님께 자전거가 갖고 싶다고 말씀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아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아이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미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이에 대해 말씀 드렸고, 그 문제에 관해 그분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저는 제 딸아이가 믿음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전거를 주실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단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은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완전한 평화를 느꼈고, 하나님께서 디아나에게 자전거를 주실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제 모습에 저조차 놀랐습

니다 “언제요?” 아이들이 늘 그러하듯이 디아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미 주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주 빨리 주실 거야. 아마도 몇 주 내에 주시지 않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 보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던 여자였는데 그녀는 구원받지 못한 불교도였고, 우리는 만나본 적 없이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딸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디아나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디아나를 보며 참 귀엽다고 칭찬했고 저는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종종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곤 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선교사님 딸만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녀가 말하자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도 딸아이에게 가능한 빨리 자전거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는 사실 오늘 디아나에게 자전거를 사 줘도 괜찮은지 여쭙어 보려고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음, 그, 그게,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안 될 이유가 없죠.” 저는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전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선물을 거부해야 할까요?

그 이웃이 정말로 자전거를 사 줄 것인지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

가 다음 날 디아나의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왔을 때 저의 의심은 기쁨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그 자전거를 사려면 (1986년도에) 150달러 정도는 내야 했고, 당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자전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전에 그 여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 자전거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전부는 제가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 그분만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날 주님께서서 이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 복음 10장 4절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요 10:4).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낳아 주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면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차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 뒤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우긴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점을 알아 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까? 이 구절은 그분의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그분을 알아차릴 만큼 그분과 친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

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곧 그분의 음성을 매우 분명하게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먼 그럽은 자신의 책 〈믿음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약 시대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전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 하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수만 명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과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저는 그럽 형제의 주장 중 어떤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믿음에 관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항상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은 진리였고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도 진리였으며, 오늘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성경 기록처럼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믿음이 옵니다.

이 주장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찾아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8).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롬 10:17).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계시되었으나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롬 4:17). 믿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

다 (확신과 신뢰, 마 9:28).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 9:29, 13:58).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믿음(faith)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믿는 것(belief)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들이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그분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종종 사람들은 믿음이 자신들 안에서 할일 없이 쉬고 있다가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튀어 나와서, 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는 존재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생길 때, 그저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에 부채질 좀 하면 믿음은 활활 솟아 오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 놓고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주는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불손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롬 10:17) 옵니다. 우리는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나요?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 12).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 역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벧전 1:5)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기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벽에 있는 작은 콘센트가 가전제품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 있는 대형 발전기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콘센트를 통해 가전제품들은 대형 발전기의 힘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히 12:2). 가전제품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며 “성경 기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육신적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가 믿는 사람이나 물건이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성경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이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간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는 믿는 자들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의 근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딤후 3:15),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딤후 1:1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그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일 5:4, 5, 6b)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belief)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faith)이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믿음을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언이 진리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믿을 수(believe) 있도록 믿음(faith)으로 주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것들에게 대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1절: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절: 이것을 믿는 모든 혼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7, 8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며 일치하십니다.

7, 8절: 그들은 하늘에서 진리를 증언하시고 땅에서도 증언하십니다.

13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2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faith)으로 믿을(believe)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전부 해결이 될 지 안 될 지가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롬 3:3). 믿음(faith)은 승리이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believe)합니다. 저는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in)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무언가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in) 믿음을 가지고 있다. (I have faith in him, “나는 그를 신뢰한다”라는 영어 문장을 직역한 것)”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안에”는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 믿음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유일한 소망은 성경 안에(in) 있다”고 말하면 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성경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적절한 구절은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

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갈 3:22). 이해가 되시나요? “믿는 자들에게……약속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나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들을 “믿게(believe)” 해준 것은 믿음(faith)이었습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 만약 믿는다면, 미래에 그분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 덕택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of(의)”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from(로부터)”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믿음”(롬 3:3)을 살펴 봅시다. (역주: faith of God(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of”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 미래에 대한 그분의 계시 등등을 의미합니다. 또는 “of”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음(faith)”과 “믿는 것(belief)”이 얼마나 따로 떼어 놓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 어떤 누군가의 믿음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20). 그들의 믿음(faith)이 부족했기 때문에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꺾인 것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unbelief)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belief)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는 로마서의 구절을 인용해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접붙여지게 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faith)입니다. 그러나 믿음(faith)의 약속은 믿는 것(believing)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롬 11:18)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믿음(faith)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believe)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쉬운 믿음(easy-believism)” (역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 없이 영접 기도만 올리면 구원 받는다는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옳은 주장인지 로마서의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2).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지 않으면(do not believe), 우리는 의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faith)을 가진 자만 믿을(believe)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속자로 믿을 수(believe) 있기 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faith)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구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요 6:44),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요 12:32).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창조물 혹은 설교를 통해 제시된 증언을 믿을(believe) 충분한 믿음(faith)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faith)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한다면 경건한 슬픔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구원 받으려면, 그가 길을 잃은 자라는 것을 납득시킨 후 구원의 교리를 믿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깨우치도록 도우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죄인에게 믿음(faith)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그렇게 하십니다 (요 12:32, 요 1:9 참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믿기로(believe) 선택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건한 슬픔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 믿어야(believe)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칭의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

2:16).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faith)으로 입니다. 누가 의롭게 되었나요?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faith)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faith)”으로 의롭게 됨을 믿었습니다(believe).

로마서에서 다시 살펴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5:9).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해주는 것은 피이지만, 믿어야만 그들을 의롭게 해줍니다. 믿음과 똑같지 않나요?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9)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역시 믿음으로 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갈 5:5).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히 11:6). 인간은 믿음(faith)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믿을 수(believe) 없기 때문에 믿음(faith)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관련 구절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

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 10:17). 믿음(faith)이 오면 믿을 수(believe)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딤후 3:15).

성경은 “능히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라는 부분에 주목합시다. 이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 죄인이 그분을 믿을 수(believe) 있게 해 주는 믿음(faith)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 보라고 말합니다. “다 괜찮아질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남의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터무니없는 생각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의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는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 뒤에야 그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십니다 (히 12:2). 믿음은 그분 안에서 생겨 났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10.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엡 1:9-13). 순서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알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believe), 우리 삶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그분을 신뢰 (trust)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일하게 하려면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13.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 2:12-13).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분의 소망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는 우리와 정답 알아맞히기 게임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래된 자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분의 말씀을 숨 막히게 합니다. 오늘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6. 하나님의 뜻 알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5:14-15).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면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원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거나 관련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께서 들려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여쭙어 봐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추가적인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 계속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하다고 하는지 듣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응답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때 믿음(faith)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believe)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지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분과 의견을 달리하여 믿지 아니함(unbelief)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믿음(faith)과 믿는 것(belief)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The Perfect Will of God)>에서 저자 G. 크리스천 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대형 고아원을 이끌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물러는 이전 세기의 영적 거장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백 5십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돈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이 간호 받고 양육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환율로 따지면 1억 달러(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경이로운 기도 응답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는 시대를 막론하고,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고, 그가 맡았던 고아원 사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어왔던 모든 후원금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랍고 세밀했던

모든 인도하심은 간절한 기도와 단순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How to Ascertain the Will of God)〉라는 글에서 조지 물러가 직접 공개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제 자신의 뜻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 90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의 90프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할 준비가 되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로 다가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감정이나 잠깐 받는 인상에 결과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위험한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그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의 뜻을 찾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성령님만 바라본다면 역시 위험한 망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한다면 그분께서는 말씀에 따라 일을 행하시며 말씀과 결코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섭리적 상황을 고려해 봅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살펴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저에게 계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공부, 성찰을 통해 저의 능력과 지식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두 세 개의 간구를 더 한 후에도 제 마음이 평안하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린 거래에서도 이 방법은 항

상 효과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리의 공식은 (만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 보며, 섭리적인 상황을 살펴 보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침례교인이라 부르며 이런 종류의 믿음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펜테코스트파(성령의 힘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파) 사람들처럼 믿음의 문제에 자주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단순하게 높은 목표만 잡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펜테코스트파 설교자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개인 비행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한 뒤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캐딜락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그 분께 말씀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비행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배달해 주시거나, 배달을 포기하고 나쁜 하나님이 되어 버리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마 21:22).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마 21:21).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따라 우리가 만일 믿는다면 구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 봅시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

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일 5:14).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분의 뜻의 계시로 시작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만 보면, 우리의 작고 유한한 완두콩만한 두뇌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참된 믿음(faith)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믿을 수(believe) 있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을 믿음(believe)으로써 믿음(faith)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믿음(faith)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무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준비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 중 첫 번째는 말씀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며,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훨씬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형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었으면 할 때, 저는 그것이 형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봐 겁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묻곤 했습니다. “형, 내 부탁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러나 항상 형은 재빨리 “그게 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제 부탁을 들어주고 싶을 만큼 형은 저에게 헌신적이거나 충분히 저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은 제 뜻에 맞추어 주기 위해 본인의 뜻을 전혀 내려 놓지 않았습니다. 형이 제게 보여 준 관심은 제 뜻이 형의 인생의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내려 놓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네가 나의 뜻을 따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은 “주님, 그게 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결정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뜻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만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던지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평생 동안 인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특별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매일 도와 주십니다. 남미 내륙의 정글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경험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선교사님은 근처 정글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뚜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글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는 보통 며칠 전에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지 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아침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특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행을 위해 신속하게 준비를 했고, 인디언 원주민 몇 명을 불러 모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뻘뻘하고 험난한 정글을 지나고 해질 무렵에야 어느 원주민의 오두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오두막 안에는 말 그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선교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즉시 성경에 관해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질문을 하자, 이 죽어가던 이방인 노인은 이전 밤에 어둠 속에서 희망과 빛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나라에서 사자가 와서 성경을 전해주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곧 꿈에서 깨어났고, 어둠으로 덮인 자신의 오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대로 어떤 백인이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원주민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고 곧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듣다 보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고 그 노인의 오두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빛을 간절히 찾는 이방인에게 전해줄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성도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를 따르다 보면 특별

한 인도하심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시네
모든 곤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 주시며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않으시네
풍랑 심히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왕국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순례길을 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 진실하신 주 성령 (Holy Spirit, Faithful Guide)

(역주: 한국어 가사는 “나를 따라 오너라”로 끝나지만, 해당하는 원문 가사는 “떠도는 자여,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집으로 인도하리라. (Wanderer, come, follow Me, I'll guide thee home)”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까? 그 느낌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기도할 때, 그것이 마음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각인 되었나요? 여러분이 그 느낌을 따르는 쪽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혼에 깊고 안정된 평화가 찾아오나요?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소개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의 질문을 우리 자

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렸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 보았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없었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성령님의 뜻과 역사에 맡기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선교사가 말했듯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은 쉽지도 않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은 옳은 것일까요? 정말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쁘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심,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크고 무한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로마서의 구절도 살펴 보겠습니다.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롬 6:13, 19). “내주다, 드리다(yield)”는 이 구

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가 그들의 인생에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 산 페드로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저는 사촌과 만나고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사촌이었고 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었고 저는 그에게 그날 밤에 있을 선교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교를 했고 두 명의 선교사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의 발표가 끝날 무렵, 저는 그 선교사의 선교를 돕고 싶다는 큰 부담을 느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서 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헌금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분께 얼마를 헌금 해야 할까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제 마음 속에 금액 “150달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가로 젓고는 “주님께서 얼마를 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다시 “150달러”가 떠올랐습니다. 이 액수는 제 의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150달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금액이 확실한 건가요? 저한테 150달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표책을 든 채 150달러를 적을지 말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저한테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표책을 들여다보았고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잔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50달러를 적어서 내 버리면 여

행 경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제가 받아야 할 현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믿음이 부족해 150달러를 기쁘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저는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선교지로 가는 것을 돕겠습니다”라고 제 뜻을 내려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흠, 50달러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50달러를 수표에 썼습니다. 50달러는 제가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고 마음에 전혀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찢어 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100달러면 괜찮겠지. 나 같으면 교회에서 현금을 받고 어떤 성도님께 따로 100달러를 또 받는다면 꽤 기쁠 거야.”라고 생각하며 100달러를 수표에 쓰기 시작하는데, 마치 주님께서 제 어깨너머로 저를 똑바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한테 말한 금액이니?”라고 그분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니요, 주님께서서는 150달러라고 하셨죠.”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수표에 150달러를 썼고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 유일한 사촌은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제 설교를 듣기 위해 선교대회에 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건물을 나설 때, 사촌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 때 그는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고 중국에서 네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수표책을 꺼내 200달러의 금액을 수표에 써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드린 금액에 50달러나 더해진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저는 왜 제 사촌이 현금함에 돈을

넣지 않고 제게 따로 현금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사촌이 저에게 200달러를 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150달러를 현금하지 않고 그 날 저녁 사촌에게서 현금을 받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신 150달러를 드리는 대신 제가 50달러 또는 100달러만 냈다면 제 사촌에게서 200달러를 받았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는 교회에서 제가 했던 설교에 대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150달러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제가 드렸던 돈을 모두 돌려 받았고 그에 더해 200달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현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제게 150달러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뒤에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 제게 150달러의 현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계속해서 “안 돼요. 저한테는 정말로 150달러가 없다고요.”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만큼의 금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다.”라고 답변하실 것이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믿어 볼래? 너는 그 금액을 갖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도대체 저한테 그 돈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여쭙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 30분 후에 건물 밖에 나가면 그곳에 그만큼의 돈이 있을 거란다.”라고 알려주시고,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주님을 의심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잖아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아셨습니다. 제

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여전히 미래였고 모든 육신적인 능력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일까요? 온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나누어주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수도세를 낼 수 없을 거라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만약에 먹을 것을 살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미리 걱정합니다. 바로 그 “만약에”라는 걱정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빨리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주쯤 되면 예상했던 대로 예산이 빠듯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현금했으면 지금쯤 곤경에 빠졌을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떻게 그 일이 잘 풀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믿음은 항상 해결책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우

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줘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고민들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던 어느 할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분께 가족들은 고민 끝에 “할머니,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아, 이제 그래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니?” 형제 자매님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만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겠죠.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만큼 멀리 가 보면, 그곳에서는 항상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주님의 구속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만큼 멀리 가 보면, 그곳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들 것 보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먼 곳에 직접 데려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여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추측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여러분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날마다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

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줄타기 곡예와 같습니다. 아래에 안전 그물이 있든 없든 곡예사는 인상적인 쇼를 보여 줄 수 있지만, 안전 그물을 치워버리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든지,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믿음과 줄타기 곡예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선교지에 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고 대표위원이 되었을 때, 저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준비가 다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원해주는 교회를 몇 개만 더 붙여주시면 선교 지역으로 바로 가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며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는 주변의 선교사 동료들에게서 믿음과 재정 의 단련에 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 계속 되었고, 곧 저는 제가 아직 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갈 때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고 싶지만, 지원해주는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내 선교 사역은 망할 거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너를 지원해주는 교회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 그 교회들은 단지 내 도구일 뿐이고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꼈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지원해주는 교회가 아무리 적더라도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모두가 제게 충분한 지원 없이는 선교지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들

에게 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쨌든 가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 휴스 형제님은 믿음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천, 수만 달러(수백에서 수천만 원)가 채워질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자주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 여쭙어 보았고, 그분께서는 너무 많은 돈을 저에게 맡기실 수 없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에게 돈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나눠준 얼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일해 오셨는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간증을 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지 않는지 혹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위해 수십만 달러(수억 원)가 모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 휴스 형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여쭙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대만으로 갔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시절, 어떤 교단의 선교사가 제게 교회 개척 기금, 도서비, 휴가 기금, 그리고 다른 여기저기에 필요한 기타 기금에 얼마가 있는지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제

님, 현재 저한테 있는 기금은 먹고 사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고 집세를 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때 저한테 영어를 배운 모든 학생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때쯤 저는 꽤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가서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 선교사인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살 돈도, 성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쏟아 놓았습니다. 저는 만약 주님께서 제게 전도지를 주시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성경을 주시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그분께 요구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제게 주셨고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님은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보내주셨고 제가 대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성경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통해 뒷면에 제 이름과 주소가 적힌 80,000장이 넘는 전도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은 전도지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나눠줄 수는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중이었고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주셨지만,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자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형제

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얼마 안되어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주님께 가족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만을 떠나기 직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가족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피아노가 필요했지만 역시나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 선교사 가족이 휴가 차 귀국하면서 교회에 피아노를 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다시 기도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소유의 피아노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피아노를 위한 특별 헌금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국했던 선교사 가족이 피아노를 가지러 돌아오기 바로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피아노를 주셨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피아노를 가지러 올 때까지 새 피아노는 저희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교인 중 한 사람인 안나가 주일 예배 후 저희 집에 와서 새 피아노를 봐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피아노를 본 그녀는 피아노 위에 손을 얹으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아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인이 너무 적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피아노를 주셨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만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7. 믿음의 힘

마태복음 17장 14-20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믿음(faith)과 믿는 것(belief)이라는 단어가 같은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unbelief) 때문 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faith)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 으리라” (마 17:20).

이 구절은 두 단어를 구별함과 동시에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faith)이 부족해서 마귀를 내쫓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기(Unbelief)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faith)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못해 믿는 시늉은 하면서도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박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그분을 완전히 믿지 못한(unbelief)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아주 조그마한 믿음(faith)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라면 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할 것입니다. 산을 움직인다니요? 저는 산을 움직이기는커녕 마당에 쌓여 있는 나뭇잎더미조차 “옮겨 가라”라는 말 한 마디로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겨자씨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 (If ye have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이 구절에서 나온 “겨자씨 한 알만 한”에서 “만 한”은 영어 단어 AS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즉, 겨자씨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많은 양의 믿음(faith)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겨자씨에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들어 있고, 그 믿음의 결실은 놀라울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1-12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생기도록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인간만 빼고 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는 데(believing)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

기 때문에 씨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겨자씨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에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faith)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데(believe) 충분한 믿음(faith)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유명한 미국의 변호사이자 창조론자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땅에 작은 씨를 심었습니다. 햇빛과 빗줄기 아래에서 그 씨는 껍질을 벗고 조금씩 커지더니 결국에는 무게가 씨앗일 때보다 20만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씨앗은 얇은 줄기를 통해 들어온 모든 영양분과 햇빛을 활용해 수박이 되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녹색의 껍질이 있었고, 그 안에는 흰색 껍질이 있었으며, 더 깊이 들어가면 붉은색 알맹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 속에는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 씨앗은 수박의 맛과 색을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요? 겨자씨에는 수박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며 그럴 수 있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박 씨는 수박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그 설계를 성취하는데 충분한 믿음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복음 전도자 샘 존스(Sam Jones)가 말한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존스 형제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무신론자는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

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으로 가득 찬 밭을 보며 신은 왜 수박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덩굴은 포도나무 줄기처럼 작고 얇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매우 자그마한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에서 매달려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작은 덩굴이 작은 도토리를 지지하고 거대한 참나무가 큰 수박을 매달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마칠 때쯤 도토리가 그의 정수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이 길을 걷던 존스는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수박 대신 도토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수박은 수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도토리도 도토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인간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남은 인생 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들을 구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무로 된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크리스털로 된 초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을 해 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라고 주님께 여쭙어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5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의 믿지 아니함(unbelief)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슬픔에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믿지 아니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합니다. 믿음(faith)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8. 사람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믿음

이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칼빈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택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 같더라도 칼빈이 제대로 파악한 것과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칼빈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타락 이후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 의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단순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인간이 죄의 본성이 없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기 전만이 인간이 진정한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마귀의 자손이 되었으며, 죄의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전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길을 잃었으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들이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마 15:1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 8:4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 8:34).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 4:9).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고후 4:3).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전 2:14).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행해져야 합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심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신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영적 진리를 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칼빈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거룩한 선택의 진실을 왜곡시킨 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단입니다. 존 칼빈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정답은 믿음(faith)입니

다! 믿음은 어둠과 빛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줍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히 4:2).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복음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믿지 아니함(unbelief) 때문이었습니다 (히 4:6 참조). “믿음(faith)은 들음”에서 왔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실행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집트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faith)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믿음이 온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의지를 행사해 믿기로(believe)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faith)이 먼저 오고 믿는 것(believe)이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믿음(faith)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절에서 하나님을 믿고(believe)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 믿음(faith)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고백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창조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는 한 성경적 믿음(Bible faith)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세상적 믿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의 차이입니다. 세상적 믿음은 인간의 육신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창조물들이 보여 주는 증거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롬 10:17).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각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believe) 있는 믿음(faith)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믿을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과 걸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당하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을 수(believe) 있는 충분한 믿음(faith)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믿음(faith)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faith)에 따라 하나님을 기꺼이 믿을 지(believe) 여부입니다. 그 결정이 칼빈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셔서 죄인을 그분께로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요 6:44),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요 12:32).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물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faith)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 받기 때문입니다.

9.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받은 베드로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날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구세주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에 관해 연구해 온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4.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5.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눅 5:4-7).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이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하채 그들은 이른 아침에 바닷가로 돌아와 고기잡이 도구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업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구원 받기 전에 어부였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물줄기를 거슬러 그물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대한 그물의 일부가 젖었을 때 그물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고기잡이가 끝난 뒤 그물을 깨끗이 씻은 후 걸어서 말리는 과정은 허리가 꿰어질 것처럼 고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로 돌아옵시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수고로 인해 피곤해진 몸과 빈 그물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네”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고기를 좀 잡았

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저기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주님께서 지시하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농담이시죠?”라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한 뒤, “우리는 정말로 녹초가 됐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고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았나 봅시다. 친구들, 고기 잡는 일은 우리 전문이지 않나? 주님께 어제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 좀 드려보게.”라고 말을 이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았던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어 봤다면, 그들은 “물고기가 진짜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배로 돌아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부로서의 경험을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도 안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라고 말했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물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 잡은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 앉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 놓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believing)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believe)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faith)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큰 계획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합니다.
2. 어떤 이유와 경험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 우리가 믿은(believe) 것에 대해 주님을 신뢰(trust)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4.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 일하고,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씨를 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 작은 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몇 년 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간단했지만 심오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방법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가장 간단한 결정조차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시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시계는 살 당시에는 디지털 손목 시계 치고는 최신식이었고, 한 달에 6달러만 내면 살 수 있었을 정도로 가격이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광고를 본 뒤 구입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시계들과 비교하면 두께는 약 두 배 정도로 두껍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단 두 가지 기능밖에 없었지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온갖 종류의 새로운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소형 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 전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저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시계의 기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계로는 10개국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도와 온도도 표시되고, 맥박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시계를 보고 나니, 저는 갑자기 제 구식 시계가 불만스러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계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저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학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난 뒤라 관련된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마트 앞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광고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세이코 시계 특별 판매, 재고 소진까지 50% 할인.”이라는 광고였습니다. 저는 무엇이 있나 보기 위해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제가 원하는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비싼 시계 중 하나였지만 50% 할인된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래된 욕심이 탐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원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 모델의 마지막 한 개 남은 제품이네요.”라고 말했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이기도 했고, 엄청나게 많이 할인된 것이기도 했기에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동기였지만 그 당시에는 옳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졌더니 20달러가 나왔고, 시계를 사기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할부로 해도 괜찮죠?” 저는 판매원에게 물었고 그녀는 “물론이죠.”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는 이루어졌고 저는 기뻐하며 마트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정말 오랫동안 원했던 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그 시계에 대해서 기도했니?” 그분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단순한 손목시계 하나일 뿐인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성경신자가 아니니?”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 물론이죠, 주님,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성경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나와있지 않니?”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계를 사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그분의 질문에 저는 판매대 뒤쪽으로 가서 “주님, 이

시계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마지막 한 개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주님은 저에게 “왜 그 시계를 사려고 하는 거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는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니?”라고 하셨고 저는 “있어요, 주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새 시계만큼은 아니에요.”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한테 시계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네. 그렇지? 가서 환불을 받는 게 좋겠다.” 그분의 말씀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가 환불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떠나려 하는데 불만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 게다가, 나는 항상 희생해야 하고, 또...’ 저는 마음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아들아. 너는 방금 전에 옳은 일을 했고, 나는 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게 옳은 건 맞는데 제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아들아, 좋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이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 너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잖니.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자 저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래된 시계가 계속 작동하는 한 새 것을 사지는 않겠지만, 만약 저에게 새 시계를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반드시 줄게.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네가 사려고 했던 바로 그 시계를 내가 줄게.”라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지 매우 궁금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몇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파견 선교를 다니

는 동안, 저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저는 통화만 해 봤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끝난 후, 목사님은 우리가 다음 장소로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에, 목사님께서 제게 현금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아, 맞다. 따로 드릴 게 있어요.” 그분께서 갑자기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후, 저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뒤,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시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여쭙어 보았고, 이런 멋진 선물을 받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계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설교했을 때 누군가가 현금함에 넣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토록 관대하게 비싼 물건을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그분의 성함을 여쭙어 보았지만 목사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말로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제가 당혹스러워하자 그분은 제게 수요일 예배 중간에 들어왔던 나이 든 부랑자를 기억하냐고 저에게 물으시며 “현금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안에다 넣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계 브랜드가 존재하고, 각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모델을 출시하는지 아시나요? 한 남자가 6개월 전에 수많은 시계들 중에서 특정한 시계를 보고 난 뒤, 자기가 살던 곳에서 3000km 넘게 떨어진 교회에 갔을 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예배에 와서 현금함에 새 시계를 넣고 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이런 엄청난 우연이 놀랍게 여

겨진다면, 그 남자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계와 정확히 동일한 시계가 그 헌금함에 들어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제게 그 시계를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간 동안 저는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 십만 달러(몇 억 원)를 주셨거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몇 조 원)를 주셨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분께서는 제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손목 시계를 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 수고를 하신 걸까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 혹은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날 가르쳐 주신 교훈은 “내가 미국에서도 너를 위해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해외 선교지에서도 너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는 베드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는 제자들을 보여 주며 시작됩니다 (마 14:24).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영”을 보았고, 당연히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있는 것

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상황을 좀 더 분석하고, 기도해 본 후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알아 보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라”라는 한 마디만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능력이나 믿음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폭풍우로 요동하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곁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저 없이 순종했고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떼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믿음(faith)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래된 육신의 생각을 듣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이성적으로 행동해,” “너는 웃음거리가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 같지 않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을 배웁시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겪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우리는 가장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저 멀리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같은 질

문을 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찼던 배 안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잠 들어계실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아이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는 그 중 한 사람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장면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위대한 시도로 변합니다. 순서를 잘 살펴 봅시다.

- 1)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함.
- 2)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계시하신 뜻을 알게 됨.
- 3) 말씀을 통해 믿음이 주어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faith)이 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조금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believe)이었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내가 믿을 지 믿지 않을지 결정할 시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11. 믿음은 권위에 기초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0).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unbelief)이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faith)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떻게 믿음(faith)이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해 봅시다 (마 7:29). 백부장도 그 연관성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해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종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설교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손에 든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오니라” (마 8:13).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믿는 것(believing)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믿음(faith) 때문이었나요?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faith)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believed).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글쎄요,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일부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신 말씀 전부를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

약 그랬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faith)만큼만, 그리고 그가 믿고 자(believe) 했던 만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종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었겠지만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은사주의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믿음(faith)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근거하여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faith)의 기초를 훼손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믿음(faith)과 믿는 것(believing)에 관해 가르치셨을 때를 다시 주목해 봅시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는 “수제사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거늘” (마 21:23). 문제는 권위입니다. 또한 다음 구절들에서 “믿음(faith)”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살펴봅시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행 16:5), “사랑하는 자들아……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유 1:3). “믿음”은 단순히 계시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의 믿음이란 그 당시에 교회에 계시된 진리라면 무엇이든 해당되었고, 오늘날 믿음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12. 믿음의 회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2a).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믿음(faith)은 그분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믿을 수(believe)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believe)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들에서 쓰인 “우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찾아 보면, 어떤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faith)의 부재 또는 부족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거나 믿지 않을 때(unbelief) 생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눅 8:25a),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히 10:23). 마태 복음에 있는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마 9:22). 믿는 것(believing)이 아니라 믿음(faith)이 그 여인을 온전하게 만들었음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our faith)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게 해주는 반면 하나님의 믿음(faith)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believe)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그 여자에게 믿음(faith)이 주

어졌고, 그녀가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졌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처럼, 그녀가 믿을 수(believe) 있도록 그녀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녀로부터 반사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그녀에게서 볼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마 9:29). 다시 말하지만, 치유는 믿는 것(believing)에서 오지 않았 습니다 (28절). “너희 믿음(your faith)”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faith)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만 그분의 믿음(faith)이 우리의 믿음(faith)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our faith)은 믿음(faith)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너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 등의 용어들을 설명하려면,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믿음(faith)의 회로(回路, circui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회로는 전기 회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전자 기기를 작동시키려면 그 기기는 건전지의 양극(陽極, positive pole,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흐를 수 있도록 전원의 음극(陰極, negative pole, 마이너스 극)에 다시 한 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와 같이 믿음(faith)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faith)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belief)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13.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믿음(faith)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조명해 주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람은 믿거나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기로 했다면, 그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믿음은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약 2:1). 즉, 성령님께서서는 어떤 때에는 여러분이 부자에게 증언하도록 하시고 어떤 때에는 가난한 자에게 증언하도록 여러분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상대방의 신분만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증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자, 교육받은 사람,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에 속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 교육받지 않은 사람 또는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에 속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신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약 2:18).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행 20:21).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롬 11:36).

우리의 믿음(faith)은 그분에게서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주님께 (주님을 향해 드러냄으로
써) 돌려 보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가 해
야 하는 일을 함으로써 순종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이자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
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히브리서 6:1). 저는 이 구절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보
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왜 그것을 뒤에 남기고 싶어 했
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실제
로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단 교리를 논박할 수 있고, 경
륜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는 모두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까지는 쓸모
가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교리의 기초 원리를 버리고 “그것을 행하여 완수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후 8:11).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쇠 중 하나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 10:38).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
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
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경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면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faith)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 때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복권추첨과 같았습니다. 숫자를 고른 뒤 자신이 당첨되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붙잡는 법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믿을(believe)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또는 더 갖고 싶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

잡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윌리엄 부스 (William Booth) 장군은 “세상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지 아시나요? 그분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만약 우리가 순한 양처럼 그분을 따랐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하늘나라에 가서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령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육신의 정욕만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음(unbelief)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선교 지역이 닫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섬기라고 하신 교회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목사가 있는 우리가 선택한 교회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

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께서는 “나도 그것을 알고 싶다. 너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모른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제게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택해주신 아내와 함께 그분께서 세워 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완벽함에 도달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수렁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1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약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Linton M. Smith

– 중국 선교사

– 저서: 성장을 위한 첫 걸음 / 도서출판 킹제임스

옮긴이

고정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